

우리나라 YWCA가 시작되었은 / 지금 부터 44년 / 1922년 이었습니다 / 당시에 우리나라는 /
정치의로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 사회적으로는 부패와 봉건이요에서 / 여자는 배움을 받느니 /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 그 여성 자선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생각 않는 것이 거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독교와 사회운동가
들이 와서 신학을 하는 학교가 생기 시작했고 비록 신미기는 하지만 여성에게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습니다. 이렇게 된지 배운 그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동맹한 한국 여성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민족의 수난을 개탄하고 불쌍 못지 않게 위대한 신자로서의 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YWCA의
창설이 바로 그들의 대표적 인물인 현 이화대학교의 명예총장인 김광란 박사 타 정신이요 이상
이신 김팔례 선생, 그리고 유각경 선생 이렇게 시몬이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학교 여러나라
에선 이미 Y의 권을 가지고 여성생활의 향상. 민족의 발전.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창설과 같은 문명이 다른나라 Y를 보고 와서 그 사회 제제들이 다 나타나 우리 사회에도 Y를 꼭
하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는 오직 Y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단체라는 것을 감히 느낄 수 있었던 큰 신념 이따고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회를 할 수 없었고 대다수 일을 위해 필요한 경제를 뒷바라지 하다가
정리할 수 없었던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란 기독교 신앙을 밑바탕으로 한국의 수많은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전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자신의 권위와 마음과 불을 가지고 바르
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YMCA는 이미 권을 가지고서 당시 YM총무로 계시던 신을 박사 까지 우리
YW를 꼭 하는 데에 여러가지로 도와 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Y 거의 바르한 목회하에 YM과 YW는 서로
도우면서 일해오 있었습니다. 이번 호인 YM에서도 여러분까지 YW 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한글이기에 Y는 주로 영어 문장을 우리 동문의 부녀자들 위한 문맹퇴치와 기초교육을 실시 했으며
남은 시간과, 기일을 다다 해서 여장을 하여서 새로운 생활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기록, 교육 부문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
생활운동 당시 Y는 해외의
이동운동이 시작 되었고, 특정한 기록이나 신자들의 모임으로 성정악기. 기로, 예배를 거행하지 않았으며
여들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양양 하며 교리와 믿지 않는 사신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 것이
Y의 임이었습니. 사회 사업과 높은 계층 사람들 사이의 큰 인종의 하나였고 상류층의 주민들인
최종신앙을 우리는 YWCA 정신의 성취와 일치 모든 난까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세계 YWCA에서 상류층과 두르칸트를 통하여 원조를 해주고있어 한국 Y의 재건과
자주와 안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Y는 연경, 장남, 계남, 인종, 교파를

조절하여 모든 여성들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소녀들. 대학생. 직장여성. 여학생들. 농촌여성. 가정부인들이
 관련 사귀고 새가들은 배우며, 민족주의 사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Y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와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우리 여성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고,
 모든 것과 같은 이 개념은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배웁니다. YWCA는 언제나 필요에 따라 청소년. 성당. 건강한 인력. 여성생활에 필요한 기타 두드러진
 그대 그대 변하는 사회에 맞게 적응하도록 민중에게 그들의 열정이 응화되고 노력해 왔습니다.
 2년 동안의 활동으로 대략으로 시작된 고아원. 소년원. 전쟁 미망인을 위한 사랑방. 유류학생. 농녀원은 전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봉사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가정주부들을 위하여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 의생활. 생생활. 주생활. 자녀교육 문제, 가정 경제 문제 등을 공부할 수 있고 가정 주부로서
 어떻게 보다 잘 살 수 있는가를 ~~공부~~ 배웠습니다 주부학교를 작지않 Y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YWCA는 계속

로 자아화해나. 한 가정을 떠나 우리 주변에 어떤 흥미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YWCA는 그것은 제정해
 변해 노력합니다. 서울에서 여학생들의 생활이 시민들에게 불쾌한 것은 주례에는 그들은 미리 훈련을 받은
 있는 기원은 온다리가 적면과반반에 크리스마스 밤에서 내기 운동. 윤환인. 경매점 모습 운동을 하인.
 등등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우리하를 보다 살기 좋은 명랑한 곳으로 만드자 하여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YWCA는 계속하여 사회를 개척해 나가며 민중 개인적으로 생활 ~~개선~~ 하고, 지혜가 자라고 청년과
 좋은 소년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식의 보을 잘 살 수 있게 해 주는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좋은 시민이 되고 국가적으로 좋은 국민이 되며 ~~중~~ ~~생~~ 한 것은 나아가 세계
 평화를 이루 하는 데까지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고 노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더욱더한
 그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것로 또한 Y의 한 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지만 우리 Y에서 모든것의 밑바탕은 이루고있는 YWCA 정신. 목적이 있습니다.

「전통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알게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이 만하신 모든 것을 인종
 하게 하고 구제하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생활에 실천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바탕에 많은 단체들이 있어 기독교... 단체, 여성... 단체. 등등이 많지만 기독교, 여성으로서
 세계적인 단체로서의 기원은 YWCA 만 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 우리는 Y의 한 사자가 된을 자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YWCA는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관산. 광주. 인천. 목포 등 11개 지회
 2개 지회 ~~2개 지회~~ 58개 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총괄한 것이 대한여자 기독교 청년 연합회.
 즉 대한 YWCA 연합회이고 또 이 연합회는 17개 지회로 조직되어 있는 세계 Y 연합회에 가입되어 세계적인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이 지방 Y에 가입을 했다면 그사람은 대한 Y 연합회의

일원인 동시에 세계 Y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춘천 Y가 권익회 라는 YWCA에 가입한다면 춘천 Y 자체가 연합회의 한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회에서는 각 지방 Y를 회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 회장이 되면 각 회원과 본회원 아는 것이 있는데 시의회인으로서 회원이 된 사람이 본회원으로 지방 Y가 연합회에 가입하려고 한 때에는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져야 하는데 그중 반수 이상이 본회원이어야 합니다. 또 어느회거나 회원이 되려면 회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한 사람이 춘천 Y에 가입하려면 5명의 회원을 내는 책임을 해야 하고, 춘천 Y가 연합회의 회원이 되면 3년마다 열리는 전국 대회에서 정해진 회비와 무관금을 연합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 연합회는 물론 세계 Y에 회비를 납부 해야 합니다. 물론 각 지방 Y는 월간회 및 기타 서류를 통하여 사업계획과 실행에 대하여 연합회와 긴밀히 연락하고 연합회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본회의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후에 전장에서 안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는 3년에 한번씩 각 지방 Y 대표가 모두 참석하여 서로의 푸른색을 연구. 토의. 채택하고 모든 사무처리를 하는 전국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내년이 열리는 제 1회 전국대회에는 반드시 춘천 YWCA 대표가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앞서 춘천 지방 Y회를 서두르려 있는 도사 인선. 여주 등 몇군데 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권익회로 45년이 지난 오늘에 많은 영향을 무릅쓰고 큰 발전을 보아 오늘의 Y가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헌한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여성 인구 전체에 비하면 볼 수 있는 것만 보자면 너무나 적고, 또 사회의 여성의 책임을 생각할 때 ^{아직} 오늘에 있어서 우리 Y의 너무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Y가 어느 일부분의 여성에게만 제한된 운동이 아니고 ^{아직} 모든 여성을 위한 Y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Y를 다져진 여자들의 모임이 될배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Y가 우리들 개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일할 여성들에게는 길라잡이 나아가는 복지사회, 세계평화 지킴이 이같이 하는 것을 노리면 되고, 우리는 Y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많아야 하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아직도 Y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생각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려} 감사해야 할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춘천 Y의 권익회 위해서 뒤에서 도와주시는 여러분과 직접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간기에 우리나라 Y를 권익회로 그 당시의 여러분은 비로 해 보면 일대나 큰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노력이지만 당시의 여자들이 여러 번만에 꽃 한송이를 신는 상대라 같은 것이었다면 모든 여러분의 정성은 무리만큼 꽃은 가꾸는 정도라고 할까요? 여자들은 이미 권익회였던 여러 지방 Y들과 연합회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고 여러분의 책임을 함께 가다리고 있음을 알아 두기 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춘천 Y가 권익회로 앞으로 앞 시인들은 물론 이 사회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여성 전체에게 큰 힘을 주실 줄로 생각하고, 사랑과 은혜가운데 여러분의 힘이 곧 정성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